

# 문화의 글로벌리제이션에서 불거져 나온 것

나나미 히로아키(名波弘彰)\*

## I. 고전문학연구의 현재

### 1. 학술의 세분화

나는 일본 쓰쿠바(筑波)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연구자의 한 사람이다. 일본문학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국문학이라고도 불렀고 다른 외국문학에 비해서 극히 많은 연구자를 배출해 왔다. 때문에 그 영역은 매우 세분화 되어 연구도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현재에 연구자 한 사람이 일본문학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내 연구도 세분화된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다.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아마도 그와 같은 연구의 세분화를 거스르는 듯한 드문 사례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신 고니시 진이치(小西甚一) 박사가 『일본문예사(日本文芸史)』 전5권, 별책 1권(해석학 관계의 저서라고 하며, 선생에 의하면 이미 원고는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이라고 하는 일본문학통사를 써낸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실로 드문 것이고 학문이 세분화된 현재 학계에서는 박사와 같이 독자적인 관점과 방법, 게다가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일본문학통사를 쓰려는 연구자는 아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위업은 박사에 의하면 오랜 친구인 미국의 일본문학연구가인 콜롬비아 대학의 도널드 킨 박사가 일본문학통사를 쓰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박사에게

---

\* 쓰쿠바 대학(筑波大学) 교수.

솔직히 털어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 박사는 미국 학자가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이상의 것을 일본 학자가 쓰지 못할 리 없다는 대항심을 품었다고 하며 그 대항심이 박사의 정열을 북돋았다고 한다.

집필 경위는 설령 당사자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동기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내 스승의 저서는 매우 방대한 서술량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정해지기까지는 아직 시일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새삼 그 가치가 문제시되는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동기’가 탐구될 것이다. 어쨌든 고니시 진이치와 도널드 킨이라는 미일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거의 동시 진행적으로 일본문학의 통사를 저술했다는 것 그 자체로 현대 비교문학연구의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지금 다른 한쪽인 킨 박사의 문학사 완성이 기다려지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스승의 위업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잠시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학술의 세분화라는 문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일본문학의 영역에 관해서 살펴보면 문학이론이나 학술적 방법론의 다양화·치밀화에 조응하는 형태로의 대상의 세분화는 놀라울 따름이다. 내가 전문으로 하는 일본고전문학은 종래의 통설에 따르면 근대/전근대라는 이항대립의 개념을 배경으로 19세기 중반 메이지 근대 이후의 문학을 ‘근대 문학’이라 부르며 그 이전을 ‘전근대문학’이라 부르지 않고 ‘고전문학’이라고 부르곤 있었다. 그러나 이 호칭에 나 자신은 약간의 저항감이 있다. ‘고전(classic)’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전거(典拠), 즉 인간의 모든 규범은 이미 고대에 창조되었다는 생각이 있고 그 인간 및 사회의 규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문화전통 속에서 일본 전근대 작품이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의 의미를 가지면서 근대 이후의 인간 및 사회의 규범에 적용된 사례는 얼마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한 의구심은 잠시 제쳐두고 세분화라는 것에 대해 말하면 고전문학은 역사학과 연동하여 고대·중고·중세·근세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나는 그 가운데 중세의 문학을 전문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세문학 전 작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말해서 와카, 렌가(連歌) 등의 운문계와 그 이외의 산문계로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산문계, 특히 ‘모노가타리(物語)’라 부르는 작품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문헌학과 해석학

학술의 세분화는 거듭 진행되고 있어 대상으로서 텍스트 문제뿐만 아니라 텍스트 취급방법에 따라 문헌학과 해석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방법론의 세분화라는 것이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원래는 연구자 한 사람에게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문헌학이 독일의 그것을 수용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의 해석학이 미국과 프랑스(거기에 러시아 형식주의도 추가할 수 있다)의 문학이론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취급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연구자의 내부에서 정합적인 체계로서 전개시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소개해 보자면 독일의 문헌학은 체계성을 중시하여 복수의 텍스트를 계통적으로 정서(整序)함으로써 유일한 오리지널 텍스트에 도달한다는 학적 탐구에 학문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계통적 처리에서 동일한 문학작품의 복수 텍스트 사이에 본문의 차이가 있을 경우, 우열의 가치판단을 더하는 것을 통해 계통도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과 하위로 깎아 내려진 텍스트가 생겨나게 된다. 하위(下位)에 놓인 텍스트는 작품적으로도 열악한 것이라는 판정이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에도 고전문학의 말류(末流)인 텍스트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문헌학적 연구가 쇠퇴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지나친 말류(末流)로 문헌학적 소급이라 했던 정통적 방법은 이제는 불가능하여 진정한 텍스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이본(異本)자체로서 연구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학적 방법이 일본의 고전문학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중세문학을 해석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곤란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일본의 고전연극, 노가쿠(能樂)의 텍스트 대본(台本)인 요쿄쿠(謡曲)이다. 그 가운데는 왕조시대의 고전, 예를 들어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 등에 전거를 두었던 작품이 몇 개나 있는데, 연구를 진행해 가면 그 전거는 『겐지모노가타리』, 『이세모노가타리』의 오리지널이 아니다. 문헌학적 계통도에서 말하면 대단히 하위에 위치하는 텍스트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노가쿠의 전성기, 귀족사회 속에서는 고전에 대한 회귀지향이 강했고 이와 맞물려 고전의 해석학적 연구가 성행하게 되었다. 『고킨와

키슈(古今和家集)』 등의 운문계는 일단 제쳐 놓고 모노가타리에 주목해 보면 특히 『겐지모노가타리』나 『이세모노가타리』, 『야마토모노가타리(大和物語)』 등이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주석서가 활발히 제작되었다. 노가쿠 작자는 그들(중세)주석서를 통해서 『겐지모노가타리』 등의 고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요요쿠 텍스트의 전거(프리 텍스트)로 했던 것이다. 중세의 주석서에는 극단적인 경우 원문을 곡해·오해해서 주석을 달은 부분도 있다. 그와 같은 주석을 개입시켜 고전이 전거가 되었던 것이다.

중세 문학의 해석학적 연구는 왕조시대의 고전존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극히 열악한 본문 연구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문헌학적 판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석학은 1940년대의 분석비평 이후 현재의 포스트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텍스트와 작자를 분리시켜 표현/향수 혹은 표현/구조/향수의 이론을 확립해서 최근의 포스트구조주의에 이르러서야 겨우 역사성이 새삼 재평가 받게 되었고, 표현/구조 : 시대의 문화구조/향수( : 는 근사치의 탐구)로 도식화된 듯한 이론이 확립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학기론 배경에 있는 것은 문학작품의 일의적(一義的) 해석의 부정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오리지널 신앙의 부정이며 ‘작자의 죽음’으로 이야기되는 텍스트로부터의 작자=작가의 배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학에서 유일한 진정한 텍스트를 가치로 삼는 문헌학적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 안티테제가 된다.

해석학에서 텍스트는 그 시대 문화현상의 산물이라는 인식에서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왕조기(王朝期)에 있었을 『겐지모노가타리』(유감이지만 텍스트로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와 중세의 『겐지모노가타리』는 별개의 작품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생각은 이렇다. 중세에 유통되었던 『겐지모노가타리』나 『이세모노가타리』는 중세의 지적(知的) 틀에 맞춰진 점이 사랑받아 왔던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중세 해석학 속에 바로 중세 텍스트로서의 『겐지모노가타리』나 『이세모노가타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했던 것이 다름 아닌 노가쿠 작자들이었다. 그들이 가장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진정한 텍스트의 존중이 아니라 동시대 관객의 기호였던 것이다. 그들의 기호 혹은 그들의 ‘지(知)’의 존재방식에 호소할 수 없는 곡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처럼 연극의 틀에 관련된 요청이 노가쿠 작자에게 중세 사람들의 ‘지’의 틀-즉 패러다임이지만-속에 있는 고전을 중시하게 했던 것이다. 현재의

노가쿠 연구는 중세의 고전문학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시사점을 부여해 주고 있다.

하나의 희망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문헌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콤플렉스의 극복이다. 말류본(末流本)이라 불리는 이본의 하나가 주석 행위를 개입해서 시대의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시대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했던 것이다. 오리지널에 가능한 한 가깝게 근접한다는 문헌학의 방법은 중세의 문화·문학에서는 거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중세라는 시대에 읽혀진 고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화 가치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시대를 살아 온 문학 연구가 중세문학연구에 정통적인 것이라는 가치가 재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사점이란 문학작품(텍스트)은 어떤 시대의 문화(체계)가 산출한 현상의 하나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텍스트 자체를 동시대의 정치·경제(교통), 문화, 종교, 생활습관(個/集) 등의 ‘지’의 직물(織物)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래의 문학사적인 종(縱)의 ‘지’의 계보의 흐름 속에서 텍스트를 읽는 방법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의 문맥을 시대의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횡으로 읽는 행위의 가능성이 개척되었던 것이다. 문화 연구(cultural study)라는 방법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의 고전문학연구에서 ‘만요 학(万葉学)’, ‘겐지 학(源氏学)’, ‘사이가쿠 학(西鶴学)’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이들 훌륭한 고전문학과 작가가 바로 텍스트 혹은 훌륭한 인물과 시대의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잘 파악하도록 해준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와 같은 가설로부터 각각의 문학작품에 입각해서 동시대 정치부터 개인의 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횡단해서 파악하는 경계연구가 성립했던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낳은 시대의 정치·사회·문화·문학이라는 세계의 전체적인 개시(開示)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문화현상으로서 문학 텍스트를 파악하는 방법의 선구라 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의 해석학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 버렸는데, 다시 현재의 개별 연구자의 입장으로 돌아오고자 한다. 문헌학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진정한 텍스트로부터 계통적으로 상당히 말류에 위치하는 이본론(異本論)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해석학은 이론의 고도화·복수이론의 폭주화(輻輳化)·치밀화로 걸음을 빠

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사이에는 결코 섞이는 법이 없고 따라서 그 사이의 거리는 개별의 연구자 속에서 양립시키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그런 판단이 든다. 게다가 현재의 해석학 연구를 전문영역으로 하더라도 앞서 들었던 이론의 축적을 내면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자칫하면 제각각 고립화의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게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인접 문화학의 방대한 학적 축적이 진행되고 있고 그 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보다 선진적이고 참예한 연구를 달성하기란 곤란해진다. 이와 같은 학술적 상황의 급속한 틀의 변용과 진화 속에 개별 연구자는 놓여 있는 것이다.

### 3. 고립화와 공동화 - 개별 연구자의 학술의 쌍방향성 -

나의 학문적 관심은 한 개인의 문제이고, 거기에는 한 개인의 학문적 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문제는 그 한 개인의 학문의 관심 및 그 성과가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조응하는가라는 것이다. 학문이 개인의 취미의 문제가 아닌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연구에서 '나'의 영역을 어떻게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서 '공(公)'의 영역으로 전개 혹은 전화(轉化)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근래 인문과학 특히 비교민속학, 역사학, 언어학 등과 함께 문학 방면에서도 연구자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의 테마 아래 공동연구조직을 만들어 테마의 달성을 추구한다. 이것을 프로젝트 연구라 부른다. 이 프로젝트 연구의 특색은 어떤 테마 밑에서 조직된 공동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에서 성과를 공표하고 조직을 해체하는 탄력성에 있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 문학전공 교수단(5명)도 대학원생과 공동연구조직을 만들어 나 자신의 전문영역과는 전혀 다르지만 '근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학·문화의 교류'라는 테마 하에 현재까지 표상론, 번역문화론이라는 문화와 문학의 경계연구의 성과를 2편 공표하고 있다.

그 경험으로 보더라도 프로젝트 연구는 매우 탄력적인 조직체이기는 하지만, 항상성은 없다. 다만 항상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대학측의 방침이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예산의 뒷받침

이 없어진 단계에서 연구 활동이 정지해 버린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술상황에서 보면 인문과학에서도 이제 공동연구는 필연적인 동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해 온 그대로이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고려대학교가 일본학연구소(현 일본학연구센터)를 창립한다는 것은 역시 현재의 인문과학의 학술상황-여기에서 설명해 온 연구자의 환경이라는 관점에서든 시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구자를 배려한 새로운 환경의 정비 개별이 아니라 집단(集)의 공동체로서의 연구가 금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것을 생산해 낼 것인가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 II. 중세고전문학과 토속적 내셔널리즘

### 1. 근세와 중세를 나누는 것

개별 연구자로서의 나와 학술영역의 관계로 돌아오자. 나는 중세문학, 특히 산문계의 모노가타리를 전문영역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관계는 완전히 개별적인 흥미에 의한 것이다. 그 흥미는 중세와 근세의 ‘지(知)’의 틀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 왜 중세인가에 대해 시대구분 인식을 근거로 설명하겠다.

일본의 문학·문화사 속에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표식(지표)이 되는 것은 대륙인 중국근세의 유교(송학·주자학)의 침투 정도라고 생각한다. 송학·주자학과 함께 전개해 온 중국유교는 사변적 체계성을 확립하고 정치지배의 ‘학(學)’으로서 봉건체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형성과 결부되게 된다. 그 근세 유학이 한자문화권의 주변에 위치하는 일본열도에 남북조 경(14세기의 중반)부터 서서히 침투해 왔다. 그때까지의 유학의 담당자는 대륙에서 유학한 자가 많았던 선종의 승려였는데 그 가운데 순수하게 주자학을 자신의 최고의 학문으로 삼으며 정치지배자 측근의 이데올로기로서 봉사한 학자가 출현했다. 그 즈음부터 일본의 지적 틀의 기층부는 불교로부터 주자학으로 이행하였고 주자학이 불교를 누르고 사상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상교체 과정 속에서 일본의 문화·생활습관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유교화가 진행된다. 근세라는 시대의 등장인 것이다.

문학의 영역에서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이라 불리는 덕목이 인간을 규범화하게 되었고, 충효(忠孝)라고 하는 국가와 가족의 지배 윤리가 인간 행동의 가치가 되었다. 인간이 국가, 가족에 매몰된 ‘무사(無私)’가 궁극적인 인간존재의 존재방식이라는 관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무사도(武士道)라 부르는 것이다. 인간보다도 지고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지’의 틀은 주자학이 준비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주자학의 전파·유통은 한학문화권(漢學文化圈)의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으며, 대륙·반도·열도에 걸쳐서 하나의 철학(사상)·윤리체계가 넓고도 깊게 침투했던 시대의 도래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중세는 근세적인 ‘지’의 형태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글로벌화의 대극에 있는 문화·종교·문학의 모두가 고유의 토지에 뿌리를 내린 가장 토속적인 내셔널리즘의 시대였다.

## 2. 중세, 혹은 ‘말과 주술성(呪性)이 교감하는 세계’

나는 근세의 ‘충효, 오상(五常)·신분(=天分 : 身分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관념)을 원리로 하는 문학-주로 산문계 문학에 주자학의 영향이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근세가 주자학적 합리주의의 시대, 즉 ‘합리’라는 관념을 키워드로 한다면 그 이전의 중세는 종교보다도 좀 더 토속적인 ‘주술성(呪性)’이라는 관념을 키워드로 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가장 내셔널한 세계인식 밖에 없었던 시대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중세라는 시대에 만약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와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원래 종교(밀교)의 입장에서 중세 사람들의 ‘지’의 특성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세계인지 약간 설명하도록 하겠다.

중세를 종교의 시대라 할 경우 2, 30년 전까지는 대체로 정토교(淨土教)-정토종이라고 하는 염불의 종교를 의미했다. 왕조기부터 원정기(院政期)에 걸친 교리사(教理史)·교단사(教團史) 가운데 현대에도 큰 교단세력을 자랑하는 종파의 시조가 이 중세에 탄생했다. 호넨(法然)·신란(親鸞) 등의 위대한 종교가가 그들이다. 종교사 연구는 현재 교단의 존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 이 염불종의 교단사·교리사가 일본불교사 연구의 주류를 점해 왔다. 그것이 하나



의 이유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신란이라는 종교가는 중세 사람들이 모든 사물에 성성(聖性)의 존재를 믿으며 비합리적 정신에 갇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성성(聖性)은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에 사는 아미타여래에게만 존재한다는 성성의 극한화(極限化)를 교리적으로 확립했던 종교가였다. 그 교리가 역으로 인간의 ‘지’ 예를 들면 이성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속세계를 무한하게 확대시키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신란의 교리는 신비·비합리·미신 등에 갇힌 세계 속에 합리의 세계의 출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교리는 중세 독일에 출현한 마틴 루터가 예수의 성성은 성서에만 존재한다고 단언했던 사고방식과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 대조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논리의 전개라는 틀에 한정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은 몽매로부터 개명으로 진보하는 것이라는 발전사관에서 본다면 루터도 그렇지만 신란의 출현은 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 사상이 단지 극동의 일본의 ‘지’의 결정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지’의 발전 유형이었던 점에서 종교학자는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결국 세계적인 시야에서 보아도 신란은 중세 암흑의 세계에 근세적인 합리의 빛을 가져온 종교가로서 연구자의 최대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유일절대의 가치로서의 ‘염불’과 ‘왕생(往生)’을 추구하는 정토교도·정토종 신자는 자신의 생활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 거기에 있어서는 ‘왕생’이 실재(리얼리티)이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미몽(倣夢)이며, 무상(無常)한 것으로 몰가치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설화(예피소드)로서 집성한 것이 『오쇼덴(往生伝)』이라 불렀던 종교설화집이며 염불종의 시조나 무명의 행자의 언행을 기록한 법어집이다. 정토교 교리사, 교단사의 연구는 그들 작품을 이용했는데 이윽고 중세의 문학 연구자도 그것에서 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왕조시대에도 근세에도 없는 이질성을 파악하고자 왕성하게 연구했다.

이렇게 해서 정토교의 교리·신앙, 그리고 그것을 모태로 하는 문학이 등장해서 연구되고 훌륭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결과 70년대의 말경까지 중세의 문화와 문학의 연구는 ‘염불’과 ‘왕생’이라는 이 두 문자로 뒤덮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 중세가 종교의 시대라고 할 때 이 정토교의 교리와 신앙에 완전히 뒤덮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토교와 문화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눈에 강렬하게 남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광경을 이야기함으로써 막연하게나마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나는 원래 도쿄의 시타마치(下町)라기 보다는 도쿄만의 어부마을(漁師町)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정월 행사, 세쓰분(節分), 여름 축제(夏祭り), 본무카에(盆迎え), 쇼료나가시(精霊流し) 등과 같은 작은 마을의 계절을 구분하는 종교행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식물들이 마을을 수놓았다. 나는 계절의 추이, 구분을 그들 행사를 경험하면서 실감했다. 그런데 쓰쿠바 대학에 재직하게 되면서 도쿄를 떠나게 되었다. 쓰쿠바 대학의 주변, 특히 시모즈마(下妻), 시모다테(下館)라는 지방은 정토종의 가르침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는 지역이다. 나는 정월의 휴일을 이용해서 그 지방의 정월 행사를 보러 갔지만 고향의 정월과는 달리 어떤 행사나 장식도 없이 마을은 적막하기만 했다. 정토종의 가르침에는 ‘신기불배(神祇不拝)’라 해서 토지의 신들을 모시는 풍습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신들을 맞고 대접하는 행사 등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면적인 광경에 대한 견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토교(종)가 이같은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부정했다는 것은 중세의 도시·촌락을 상상할 경우, 현대의 일상생활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중세의 도시 혹은 촌락은 도회인/촌락인(村人)과 토지와 절을 지키는 신들이 공존·공생하는 완결된 소세계였던 것이다. 산과 강이 소세계의 경계였다. 다신을 신봉하는 일본의 도시나 촌락에는 매우 많은 신들이 있었다. 신들은 불교의 부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세의 도시와 촌락을 상상한다면 사람/신/부처로 만연한 공간을 상정하면 되겠다.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나의 연구영역과 결부지어 이야기하면 그 공간이야말로 모노가타리적 환상이 풍부한 세계인 것이다. 모노가타리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대문학에 친숙한 현대인의 편견이다. 구전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노가타리는 원래 사람/신, 사람/부처의 비일상적 교류라는 환상작용에서 생겨난 것으로 왕조의 뛰어난 여류작가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픽션을 발견해낸 것은 이의적(二義的) 환상작용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풍부한 모노가타리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사람/신/부처로 충만한 도시·촌락의 일상생활을 정토교(종)의 가르침, ‘신기불배(神祇不拝)’는 부정했던 것이다.

중세를 종교의 시대라고 말할 경우 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정토교(宗)의 교리적 틀에서 일탈한 미지의 종교적 영역으로 연구자의 시선은 뻗어갔으며,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곳은 밀교적(密教的) 지(知)에 의해 지지되는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그 밀교적인 ‘지(知)’의 체계는 아직 해독해야 할 방대한 사료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미지(未知)인 채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내게 매력적인 것은 그 대상이 아직도 미개척 영역으로서 심연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중세의 모노가타리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그와 같은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야말로 풍부한 모노가타리를 산출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게 문학연구는 근세이후의 합리주의적 정신이 잘라 버렸던 중세의 주술적 정신이 뽑아내는 풍부한 모노가타리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평가란 단순히 훌륭하다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감상적인 평가는 (내게 있어) 서툴기만 하다. 연구대상인 모노가타리를 모노가타리를 산출하는 공간의 지적틀로부터 해독해내는 것, 그것이 현대의 ‘지(知)’에 있어서 불가사의하면서 매력에 넘친 것이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이면서 그것도 역시 평가의 하나인 것이다.

### 3.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와 모노가타리 서술

일반론은 여기까지로 하고 실제로 지금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노가타리로부터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의 한 면에 접해 보겠다. 나는 지금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이본으로서 아마도 오래된 본문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모노가타리의 구상도 원형에 가깝다고 상정되고 있는 엔쿄본(延慶本) 헤이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텍스트를 사용하여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종결부가 어떠한가, 모노가타리 구상의 결말이 원형으로서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엔쿄본에서는 그 결말 구상의 발단이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규슈와 혼슈사이의 해협에서 일어났던 두 개의 커다란 무사단 사이의 해전이였다.

이 해상전투에 대해서는 동국지방에 무가정권을 개시하고 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에게 전략이 있었다. 그것은 이 모노가타리와 당시 귀족들의 일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요리토모로부터 파견된 두 사람의 대장군(총대장)인 노리요리(範頼)·요시쓰네(義経)는 협력해서 헤이케군을 차례로 뒤쫓

아 갔다. 헤이케군이 최후까지 거점으로 삼은 세토내해의 해상 항행권을 봉쇄하기 위해 노리요리를 대장군으로 하는 겐지군은 혼슈의 주고쿠지방을 차례차례 점령하여 헤이케군의 해상근거지인 고지마(小島)의 맞은 편 해안까지 침공하였고 또 만일의 경우 헤이케군이 한반도 또는 중국대륙으로 도주할 퇴로를 규슈 유력 다이묘의 수군에게 명해서 봉쇄시켰다. 이에 대해 요시쓰네가 이끄는 겐지의 수군은 육상과 수로 양방향의 퇴로를 차단당한 채로 본거지인 고지마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헤이케의 선단에 총공격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두 방향으로 군대가 연합하여 헤이케를 포위하는 작전이 요리토모의 전략이었다.

혼슈와 규슈 사이의 매우 좁은 해협에 떠있는 고지마 주변의 해역으로 쫓겨온 헤이케의 선단(船團)에게는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미 없었다. 단 전술은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겐지 수군의 대장군 요시쓰네는 속공전과 기습전법을 특기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이케군에 의해 웅립되어 있는 천황이나 헤이케군의 우두머리인 대장군은 당선(唐船)인 큰 배에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실제로는 그와는 다른 작은 배에 분산시켜둔다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요시쓰네는 속공에 의한 기습작전을 취하려고 하여 분명 당선을 목표로 돌격해 올 것이므로 그것을 거꾸로 이용해서 요시쓰네를 계략에 빠뜨리고 주위에서 포위하여 이쪽도 속공전으로 친다고 하는 전술이었다. 대장군을 쓰러뜨리면 적의 선단은 모두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단지 그것뿐 장기적인 전략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었다.

양군의 해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주변의 해류를 숙지하고 있는 수군(어업·해운업자·해적)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겐지군에게는 기이(紀伊, 현재의 和歌山) 구마노(熊野), 이요(伊予, 현재의 愛媛)의 가와노(河野)씨, 규슈 봉고(豊後, 현재의 大分)의 오가타(尾形) 씨의 수군을 중핵으로 하고 결전 직전에는 나가토국(長門国, 현재의 山口県)의 재청 선봉행(在庁 船奉行) 휘하의 수군도 가세하여 ‘삼천여척’. 한편 헤이케군은 나가토국 히코시마(彦島)를 본거지로 하는 수군과 기타큐슈 연안부의 호족이나 시코쿠 사누키(讃岐, 현재의 香川) 연안부의 수군 등을 더하여 ‘칠백여척’. 전력으로 봐도 겐지군의 선단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일본전국은 요리토모, 또는 중앙의 고시라카와인(後白河院)의 지배하에 들어와서 헤이케군에게 육상의 근거지는 전혀 없었다.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

이 양쪽 군의 선단은 음력 3월 24일 오전 6시에 격돌, 개전되었다. 해전의 전술은 헤이케쪽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그것은 해협(海峽)의 조류를 교묘히 이용하여 적 선단의 대열을 얼마나 빨리 붕괴시키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 간문(關門) 해협 부근은 좁기 때문에 바다의 간만에 의한 조류는 격하여 분명 헤이케군은 그 격한 조류를 타고 적의 대선단의 중앙부에 일거에 밀려들어가는 것에 승부를 건 듯 했다.

그러나 강대한 겐지군의 선단은 육상으로부터의 측면지원(원거리화살)을 받아 조류의 불리함을 견뎌내면서 이윽고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 겐지군이 조류를 타고 적 선단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적군 속에 내통자도 있고 하여 천황 및 대장군이 어느 배에 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자마자 일거에 그 중추부를 향해서 돌격해 왔다. 양군의 전력과 전의 차이로부터 보더라도 이때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 해전에 진 것을 알게 된 천황을 비롯한 헤이케의 대장군들은 차례차례로 바다에 뛰어들어 가라앉았다. 그때까지 20수년간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일본의 정치를 장악해온 헤이케 일족 전멸의 순간이었다. 해전의 종료는 오후 1시경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거의 일곱 시간에 걸친 대해전이었던 셈이다.

일본의 역사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막부(무가정권) 개설을 하나의 전환기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이 단노우라(檀ノ浦) 전투 이전의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이 전투의 승리는 단순히 요리토모의 군사상의 과제가 일단 해결되었다고 하는 위치부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설은 이 해전을 현대의 전쟁사 분석의 시점인 전략·전술·전력·전의 측면에서 본 분석·종합이다.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서술—이것을 ‘전쟁이야기’라고 부르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 확실히 이상과 같이 분석했듯이 전략 이하 군사적 측면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 이 해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전의 시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각각이 개별적인 문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사실은 해전의 승패를 결정한 조류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직서(直敍)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 즉, 직서가 아닌 형태로 조류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우선 서술의 요소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 A) 서전에서 겐지군의 열세. 헤이케군의 선단은 의기에 넘쳐서 공격의 복을 치면서 쳐들어온다→방어하는 중에 겐지측의 미우라노 요시모리(三浦義盛)와 나카하라노 지카요시(中原親能)의 분전
- B) 겐지군의 열세, 헤이케군의 우세를 보고, 겐지의 대장군 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교토쪽을 향하여 하치만다이보사쓰(八幡大菩薩)에게 요배하고 겐지군에 대한 신의 가호를 빈다.→기적의 출현
- C) 돌고래떼가 해전 중에 해면을 튕기듯이 헤엄쳐 와 헤이케군 선단쪽으로 향해온다→헤이케군의 대장군이 음양박사(주술사)에게 길흉점을 명한다→박사는 돌고래떼가 헤이케 선단아래를 통과하면 헤이케군의 패배라고 점친다→돌고래떼가 그대로 선단 아래를 통과해 간다.
- D) 형세가 역전→천황이 물속에 뛰어듦→이하 헤이케군의 대장군들의 분전과 역사·생포

우선, 아까 유보해두었던 해류의 변화를 다루어 보겠다. 나는 C의 서술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돌고래라고 하는 물고기-아니, 물고기는 아니고 고래와 똑같은 포유류임-은 조류를 타고 해면가까이를 날듯이 헤엄치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받는 동물이다. 조류의 변화를 알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것이다. 즉, 돌고래떼가 헤이케의 선단 아래를 통과해갔다고 하는 것은 조류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겐지쪽에서 헤이케쪽으로 격하게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조류의 변화가 돌고래떼의 헤엄치는 모습에 확실히 나타난 것인데 ‘전쟁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길흉의 판단을 바라는 점(占)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현상의 변화에서 ‘주술성’의 현현을 파악하여 그것을 길흉이라고 하는 ‘말’로 정착시킴으로써 현실의 사태가 그 ‘말’대로 된다는 이 ‘지’의 존재양식이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의 심플한 일례인 것이다.

이 돌고래떼의 움직임은 유교적인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실은 B의 하치만다이보사쓰에 의한 기적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현대어적으로 바꾸어보겠다.

요시쓰네가 탄 병선의 뱃머리 부근에 돌연 하늘에서 흰 구름이 내려와 덮는다. 그러나 다가오는 것을 보니 그것은 흰 구름이 아니라 하얀 깃발이었다. (아니, 놀랍게도 그것이 (해면에) 떨어지자, 이번에는 돌고래라고 하는 물고기가 되어 해면에 떠올랐다.

따라서 하치만다이보사쓰가 돌고래로 화신하여 그 돌고래가 무리를 이뤄 아까의 접패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겐페이 양군 해전 중간에 하치만다이보사쓰의 신의가 내려서, 열세였던 겐지군에 가세하고 겐지군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플롯이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 플롯을, 겐지와 다이라씨라고 하는 2대 무사단 최후의 결전이라고 하는 모티브(또는 스토리 라인)에 기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설명 했듯이 전략·전술 등의 여러 측면에서 봐도 양군의 군사력 차는 압도적이어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 승패는 싸우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듯하므로 굳이 신의의 조력이라고 하는 플롯을 필요로 할 것 까지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 주술성에 관한 플롯은 실은 현대인의 눈에는 이미 보이지 않게 된 중세인들의 ‘지’의 틀에 의한 모티브가 있어서 그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이 해전은 겐지쪽의 군세에서는 교토 중앙의 고시라카와인이라고 하는 천황 조부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전투의 정통성을 얻고 있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적군인 헤이케쪽에는 천황이 있었다. 일본의 고대국가에 있어서 천황은 절대적 존재였으며 국가의 정통성을 체현하고 있었다. 이것을 천황신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해전이 되자, 겐지군은 그 천황에게 도전하는 전투를 해야만 했다.

세상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황금을 거래하던 일개 상인의 종가였던 자(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이제 겐지의 대장군이 되어 천황을 향해 활을 쏘고 하는 것은...

이 헤이케의 사무라이 대장의 말이 천황에 맞서야만 했던 겐지군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다. 적군에 의해 천황이 옹립되어 있는 이상, 그 존재 앞에서는 천황 조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도 무력할 뿐이었다. 겐지군에게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전투의 장에 무언가 시각으로 포착되는 강력한 대항수단이 출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전투이야기’가 우선 A의 말에 보이듯이 헤이케쪽의 압도적인 우세로 말해지고 있는 것은 실로 천황신앙에 의해 지지되는 중세인들의 ‘지’의 틀이 파악하는 이 전투의 인식인 것이다. 이것은 『헤이케모노가타리』의 또 다른 텍스트인데,

헤이케 쪽에는 천황이 3종의 신기를 몸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겐지의 군세는 “이 전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어쩌면 우리들은 천황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전투의 승패를 의심하고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다. 중세인들의 ‘지’에 있어서는 그러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해전은 역사의 현실로서 겐지군이 헤이케 일족을 괴멸시키고 그것에 끌려가듯이 해서 천황도 어이없이 익사하여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이었다. 도저히 중세인들의 ‘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 만약 단순히 무력의 문제만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사태의 발생은 어떠한 리얼리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리얼리티로서 납득되기 위해서는 B의 하치만다이보사쓰의 신의에 의한 기적의 출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출현은 실로 중세인들의 ‘지’에 있어서는 리얼리티였던 것이다. 그것은 전투의 장에 임했던 병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했던 셈이다. 앞서 말했던 기적의 묘사는 당시의 기록류에 보이는 해전의 보고서(「畚戰日記」 「交名記」)에는 적혀있지 않다. 단 어떤 연구자는 이 기적의 서술은 해전에 종군하고 있던 나카하라노 치카요시(中原親能)라고 하는 인물이 가마쿠라의 요리토모에게 보고한 지금은 산일되어 있는 종군기(「軍忠狀」)에 적혀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전쟁이야기’의 구조는 대부분 종군했던 병사의 기록 또는 증언이 제1자료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전투 중에 이러한 기적이 병사들 사이에 환시되었다고 보고 있다.

기적의 묘사는 환시된 리얼리티였던 것이다. 즉 A→B의 ‘전쟁이야기’는 천황에 대해 ‘하치만다이보사쓰’의 신의를 대항시킨다고 하는 중세인들의 ‘지’의 틀에 의한 것이다. 천황이 황위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인간-보통의 일반인-에게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천황가의 가부장이 황조(皇祖)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원정기에는 하치만다이보사쓰도 황조신이었다)의 신의를 체현하는 형태로밖에는 황위를 운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A→B의 ‘전쟁이야기’의 논리는 황조신 하치만다이보사쓰가 신의를 내려서 천황을 황위에서 배제했다- 그것이 즉 익사시킨다고 하는 것-는 것이다.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란 이와 같은 ‘전쟁이야기’의 구도, 구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A-B의 구조가 없는 한 중세인들의 ‘지’는 D의 형세의 대역전을 납득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즉 ‘말과 주술성이 교감하는 세계’란 실로 이와 같은 중세인들의 ‘지’의 틀 그 자체였던 것이다. 나의 중세 모노가타리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쟁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의 구조가 당시의 문화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 근사치를 구하는 탐구라고 하는 것이 된다. 포스트구조주의에 가까운 연구방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대천황제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어 가는 역사과정의 추적으로 향해야만 한다. 일본 문화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연구가 된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천황에 대치되는 하치만이라고 하는 신이다. 이 신은 지금도 일본전국에서 ‘하치만 님’이라고 불리며 왕성하게 모셔지고 있다. 일본의 신들은 각각의 고유한 토지의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태어나며 그 신앙이 퍼짐으로써 다른 토지의 신앙요소를 흡수하여 성장해 갔던 것이다. 나의 연구는 토속적인 내셔널리즘의 추적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과 방법에서 본다면 본래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그 결과·성과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구체화로서 흥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추적의 과정 그 자체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 Ⅲ. 유학생과 일본고전문학

#### 1. 한국유학생의 고전문학연구

나는 일본고전문학연구자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다수 맞이하게 된 것은 대략 14·5년 정도 전인 80년대의 중반 경부터라고 생각한다. 그들 유학생이 고전문학의 어떤 시대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는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대강의 경향을 말한다면 우선 근세문학이라는 점에 일치했다. 필시 주자학(근세유교)의 영향이 국가·사회·가족이라는 공동체적 피라미드의 전체를 뒤덮고 모든 계층의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반도와 열도가 거의 같은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한자문화권)의 글로벌한 사상을 각각의 민족이 어떻게 수용했던가가 유학생에게 대단한 흥미를 끌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고대문학, 『만요슈』, 『고지키』, 『니혼쇼키』의 연구라

는 것이었다. 반도와 열도의 정치·경제·문화(언어를 포함해서)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가 가장 농밀했던 시대였고 그것들이 이들 삼서(三書)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한일 비교문학연구에서 가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중고(왕조)문학. 일본의 고전문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좋은 쓰쿠리모노가타리(作り物語)와 와카의 최고 걸작이 이 시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들 작품은 세계의 고전문학의 경향에 달리 남녀의 연애, 일상생활의 미의식과 감수성의 예민함이라는 현대에도 통하는 인간성의 제가치가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향수’에 유학생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번역(해석)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밟더라도 ‘표현/향수’를 현대에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석 행위를 통하면 고전문학이 그대로 이해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회의 이질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자유학생 가운데 중고문학연구를 시도하는 경우를 때때로 보게 되는 것은 중고문학 고유의 사회 존재방식에 젠더(gender)론으로서 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결국 마지막이 중세문학이다. 내 기억에 의하면 쓰쿠바 대학에는 이 분야에서 노가쿠, 요코쿠 연구를 지망했던 사람이 2명, 와카·렌가가 2명, 그리고 『헤이케모노가타리』 연구가 2명이다. 노가쿠와 와카, 거기에 기코모노가타리(擬古物語)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고문학의 고전을 프레 텍스트로 하는 고전주의 문학이라 할 수 있고 연구의 방법 그 자체는 중고문학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헤이케모노가타리』와 같은 모노가타리는 이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시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문화성(異文化性)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표현/구조 : 문화구조/향수 라는 마치 포스트구조주의의 문학이론에 가까운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를 말하면 표현/구조에 이르는 번역·해석·본문분석이라는 행위는 다른 문학연구와 거의 같다고 해도 작품의 구조를 문화구조와 상관시키는 일종의 경계연구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가 중세의 이문화성을 분명하게 하는 열쇠인 것이다. 왜 이문화성인가라고 한다면 이미 본 것처럼 작품과 문화의 기층구조를 공통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밀교의 ‘지’의 계통이기 때문이다.

## 2. 유학생의 연구 자세

유학생이 일본고전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학문으로서 전공하려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이 보인다. 하나는 과거의 미지의 이문화성(근현대/고전)에 대한 매력일 것이다. 미지의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은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 이유에는 이문화성이 키워드가 된다. 두 번째는 일본의 고전은 이문화성을 한편으로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현대 문화의 기층에 연결된 전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현대의 지금에 관계된 현대 일본문화의 전통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에 대한 흥미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비교고찰적(比較考察的)으로 일본 젊은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쪽의 키워드는 문화전통이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이유는 단지 한국유학생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의 학생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는 이 가운데 후자인 문화전통에 대한 흥미라는 것에는 약간 회의적이다. 이것은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의 문화의 글로벌화에 대한 지향의욕이 지금까지의 문화전통을 압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대문화의 글로벌리제이션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 그 자체이다. 젊은이의 문화는 그것에 대한 동경이고 횡적이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그 반동으로서 문화의 종적 역사, 즉 문화전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현대에 그치지 않는 일본문화의 숙명이었다. 전근대까지는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의 동쪽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중심인 중국의 정치제도·문화·산물을 가치로 해서 수용해 왔다. 그런데 메이지 근대에 접어들어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구미의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라는 주변 위치를 부여받게 되자 그때까지의 문화전통은 반근대의 상징이 되었고 이번에는 구미의 정치제도·문화·산물을 근대라는 가치로서 수용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과거와 교환해 왔다. 지정학상 주변은 항상 중심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일까? 일본이란 국가는 지금까지도 공간축에 의한 문화이동이 항상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간축을 원리로 하는 문화전통은 경시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의 역사에는 경우에 따라 억압되었던 문화전통이 내셔널리즘보다도 국수주의로서 폭발했던 것은 내외에 잘 알려져 있다.

젊은이의 문화는 무의식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일본문화의 지정학과 정신사의 전통이라는 것은 잘 체득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의 글로벌리제이션을 가속화하는 매체로서 정보통신혁명(IT혁명)이 진행 중이다. 정보의 글로벌리제이션이 점점 자국문화의 전통 등과 같은 것을 누르고 있다. 문화전통이 그들 젊은이의 생활 속에서 굳이 생각할 정도의 것도 아닌 상황이다. 거기에는 열도에 산다는 특수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이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타민족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정체성을 생각할 계기가 없는 것이다. 자기를 되돌아 볼 일이 없는 것이다. 그 단적인 표현을 고전문화의 기초이며 동시에 입구인 고전어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서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고전어를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전어는 중고교에서 배우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공부하는지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한국의 고전교육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문화의 글로벌리제이션은 실로 일본 젊은이들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3. 중세의 모노가타리를 배운다는 것 - 문화전통과 창조 -

그것에 대한 첫 번째의 이유로 이문화성은 어떤가? 나는 현재 여기에 가능성을 보고 있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히 구로사와 아키라(黒沢明)의 영화는 시대물이라 불리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의 걸작 『7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는 전국시대를, 『라쇼몽(羅生門)』은 원정기의 『곤자쿠모노가타리』에서 제재를 구한 것으로 그 특성은 미조구치 겐지(溝口健二) 같은 영상작가가 에도시대의 세와모노(世話物)라 불리는 남녀의 애증극에 제재를 취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로사와의 영상은 중세의 문화전통에 대한 흥미라기보다도 실로 현대와 단절된 중세의 이문화성에 대한 호기심이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7인의 사무라이』의 어떤 장면에는 촌락인(村人)으로부터 초대받은 7인의 사무라이가 산적이 습격해 오기 전에 촌락의 방어를 생각하려고 마을의 지도 위에 수책(柵)을 어떻게 설치할까 함께 의논하는 이야기가 있다. 지도에는 촌락의 집들이 그려져 있고 가장 바깥쪽을 산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산간 촌락 주변 눈에 물을 공급하

는 강이 그려져 있고 산간에 ‘수신(水神)’이라는 문자가 보인다. 이 목으로 그려진 간단한 지도가 실은 이 촌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계 전체인 것이다. 이 촌락을 습격하는 산적은 원래 무사들로 정주지(定住地) 없이 이동하는 떠돌이인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 외부로부터 습격해 오는 이인(異人)=괴물인 것이다. 이 구도가 이 영화의 세계관이기도 하다. 소세계(小世界)에 사는 선량한 인간이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악한 괴물을 물리친다. 7인의 사무라이는 인간세계를 구하러 온 영웅인 것이다. 생각해 보면, 전국시대의 어떤 검소하고 조신하게 살아가는 작은 촌락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스토리가 세계/인간/가치의 모든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의 모노가타리는 세계의 단편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를 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경이롭게도 생각될 이문화성을 거기에서 확인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7인의 사무라이』는 걸작인 것이다.

이문화성, 그것은 중세의 모노가타리의 비밀스런 매력이다. 현대의 일상생활이 지나치게 풍부하고 편리하게 되면 될수록 인간성을 되묻는 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감성의 자극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모노가타리는 뒤덮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세의 모노가타리는 일상생활이 때로는 반전하는 비밀상성의 시공간에 빠져든 인간이 경험하는 모노가타리를 그 당사자가 말하고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인간/요괴·괴물/신이 공생하는 이계(異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갖은 능력이 다 소진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세계이기도 하다. 중세의 모노가타리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이문화성이란 이런 의미에서 이계성(異界性)이 가진 매력인 것이다. 그것은 어떤 토지의 주술성이 그 토지에 사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발현하는 주술성의 시스템인지도 모른다. 그 모노가타리는 현대의 일상성이 가져오는 평범·획일·규칙·질서 속에 매몰된 지적 호기심을 흔들어 깨우고 교란한다.

일본의 현대문화의 수출로 요란한 게임 소프트나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오래된 중세의 모노가타리적 구상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에 놀라게 된다.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모노노케 히메(もののけ姫)』, 유메마쿠라 바쿠(夢枕漢)의 『음양사(陰陽師)』, 『아베노 세이메이(安部晴明)』는 실로 그 대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젊은 이들은 그 모노가타리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노가타리적 구상력에 중세의

주술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자각시키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문화의 창조는 컴퓨터가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창조와 글로벌리제이션은 서로 양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의 풍요성이라는 점이다.

나는 중세문학이 유학생을 끌어당긴다면 이 모노가타리적 구상력의 비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천은 각각의 토지의 주술성-현대풍으로 말하면 토지가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유학생이 의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밀에 매혹되어 그 비밀에 가능한 한 빠져들어서 그 영역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IV. 젊은이 문화와 모노가타리-결론을 대신하여

중세의 고전문학은 일본의 문화전통이 일찍이 무엇을 산출했던가라는 지식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인의 모노가타리 구상력의 움직임에 관계된 창조 영역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창조가 문화전통의 개념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현대의 젊은 학생들에게 문화전통이 창조력으로 전화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중세 고전문학은 새로운 의미와 매력을 젊은이들에게 가져오지 않겠는가? 일본 고전문학 연구자의 사명과 책임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갱신되는 것이다.

일본의 고전 모노가타리를 배우려는 유학생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깨달아 준다면 일본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세의 모노가타리의 비밀로 헤치고 들어가 문화전통과 창조가 서로 대결하면서 병존하는 것을 개개의 문학작품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검증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창조는 과거에 있다고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다.